
좌전하행지 근위부 스텐트 시술 후 재협착 예측인자

전남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심혈관촬영실

김인수, 허재윤, 박수환, 이현성, 선종백, 김극중, 김광철

연구 목적 : 좌전하행지 근위부 병변의 치료성적을 분석하고, 단기 및 장기 합병증 발생률, 재협착률, 재협착 예측인자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1996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환자 중에서,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의 근위부에 협착 병변이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추적관상동맥 조영술을 시술 받은 환자 412예(남:여 = 321:91, 57.5 ± 10.11 세)를 대상으로 하여, 병변 형태, 혈류속도, 협착정도, 병변혈관 수, stent종류, 길이, 위험인자(고혈압, 당뇨, 흡연력, 가족력, 고지혈증) 등과 재협착과 관계를 알아보았다.

결 과 : 시술은 전 예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, 병원내 사망은 1예도 없었고 시술 후 추적 기간중 합병증으로 비재협착군과 재협착군에서 뇌출혈은 없었고 일과성 허혈성은 재협착군에 1예 이었고 비출혈성 뇌경색 증은 양군에 1예 있었다. 전체 재협착률은 46.3%로서 본 대학병원 전체 스텐트 재협착율 13.8%보다 매우 높았으며, 성별, 임상진단명, ACC/AHS 병변의 형태, 협착 병변 수, TIMI혈류 속도, 동맥경화 위험인자(고혈압, 당뇨병, 흡연력, 가족력, 고지혈증) 유무 등과 재협착과 무관하였다. 스텐트 시술 전 병변 협착 정도, 사용된 스텐트, 스텐트 내경 등과 재협착과 무관하였으나, stent의 길이는 재협착군에서 20.7 ± 9.92 mm, 비재협착군에서 18.9 ± 6.18 mm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($p=0.006$).

결 론 : 좌전하행지 근위부 스텐트 시술 후 재협착률은 높았으며, 유일한 재협착 예측인자는 스텐트의 길이였다.